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March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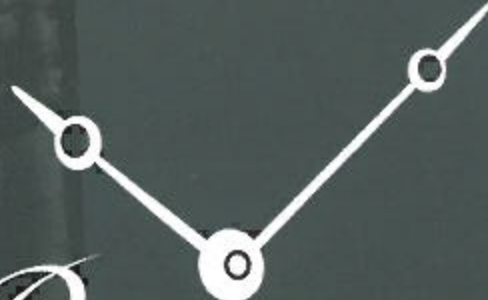
매장 비치용

〈HEREN〉 정기구독 문의 1588-7761
광고 문의 02-3015-0791



근현대를 건다

머무는 공간, 갤러리 카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경연장, 2014 SIHH
2014 S/S Bag&Shoes


Breguet
Depuis 1775

Culture



도쿄 브랜드 시티, 2002

정연두,
제대로 보기



크레용팝 스페셜, 2014



식스 포인트, 2010

2012년 <아트엔옥션>에 의해 '가장 소장가치 있는 50인의 작가'로 선정되었던 정연두 작가. 명성에 비해 관람 기회가 적었던 그의 작품들을 대거 접할 기회가 있으니, 바로 플라토에서 6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쿄 변화가의 명품 브랜드 슝 점원들의 모습을 통해 표면과 내면의 간극을 포착한 '도쿄 브랜드 시티(Tokyo Brand City)'(2002) 같은 초기작을 비롯해 뉴욕 소수자들의 바쁜 일상을 담은 '식스 포인트(Six Points)'(2010)를 선보이는 한편, 신작으로는 로댕의 역작 '지옥의 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상을 실제 모델로 재현한 가상의 조각 작품 '베르길리우스의 통로(Virgil's Path)'(2014)와 설치 퍼포먼스 '크레용팝 스페셜(Crayon Pop Special)'(2014)을 선보인다. 스케치북에 그려 놓은 꿈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작업으로 타인들의 소박한 꿈을 되살렸던 미술계의 키다리 아저씨. 일상과 맞닿은 예술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온 정연두의 현재를 확인해보시길.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3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문의 1577-7595

GALLERY editor 박지혜



신과 마을, 2006

오승윤, 오방정색의 향연

장소 가나아트센터 기간 2월 21일~3월 23일
문의 02-720-1020

1980년대, 한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간 한국 작가들은 당시의 화풍에 따라 대부분 추상 회화에 몰두하였다. 그 와중에도 민족의 뿌리를 찾고 그 정서를 담아내려 했던 화가가 있었으니, 바로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물과 풍수를 화폭에 담은 오승윤 화백이다. 이번 전시는 그가 작고한 지 8년 만에 그의 작품 세계를 망라하는 대규모 개인전으로, 그가 타계 직전까지 열의를 가지고 몰두했던 '풍수' 시리즈 40여 점을 비롯해 초기작인 정물화, 누드, 민속화 등 총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Reclaiming a Hat (still image), 2013

보이는 것과 보는 것

장소 송은아트스페이스 기간 2월 28일~4월 12일
문의 02-3448-0100

한경우 작가가 미술을 통해 일깨우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시각적인 것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관점이 얼마나 불완전인가 하는 것이다. 2011년 제11회 송은미술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경우 작가가 2년이 지난 이후, 그 지속된 실험의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은다. 비닐봉지를 구겨 만든 형상에서 악마나 박쥐, 벌레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는 한편, <어린 왕자>의 보아뱀 그림으로 인해 중절모 그림을 더 이상 중절모로 보지 못하는 현상 등을 제시하며 현실과 실제의 괴리를 조명한다.



1960년대 조 골롬보 미니 키친

20세기 부엌史

장소 금호미술관 기간 3월 20일~6월 29일
문의 02-720-5114

근래에 이토록 발칙한 디자인 전시가 있었던가. 2000년대 중반부터 디자인과 건축에 주목하며 여러 기획전을 열었던 금호미술관이 이제 '키친'에 주목한다. 192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는 오리지널 부엌 디자인을 선보이며 20세기 디자인사를 되짚어보는 것. 1920년대 독일의 주방 전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프랑크푸르트 부엌', 1940년대 르 코르뷔지에가 샤를로트 페리앙과 디자인한 빌트인 부엌 가구를 비롯해 50년대 이후의 생활 문화를 소개한다.